

창비청소년시선과 함께하는 한 학기 한 시집 읽기 추천 가이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면 더욱 편하고 유용하게 시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떡잎 아이콘

- : 친절한 언어와 주제로 구성되어 청소년시를 처음 만나는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시집입니다.
- : 학교, 성장, 우정, 사랑 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 담겨 있는 시집입니다.
- : 입시, 진로 문제 등을 담고 있으며, 고등학생 이상의 독자가 읽으면 좋을 시집입니다.

• **해시태그**: 시집의 주제를 나타내는 키워드, 시집만의 특색을 보여 주는 문구를 해시태그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 **추천 독자**: 어떤 독자가 이 시집을 읽으면 좋은지를 '~에게' 형태로 담았습니다.

• **대표 시**: 시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대표 시 한 편을 뽑아 소개했습니다.

차례

파울볼은 없다	이장근 난 학교 밖 아이	김애란	2
나의 첫 소년	손택수 나는 고딩 아빠다	정덕재	3
그 아이에게 물었다	한상권 댄스, 푸른푸른	김선우	4
감자가 맛있는 까닭	서정홍 마디마디 팔딱이는 비트를	김미희	5
만렙을 찍을 때까지	박일환 가장 나다운 거짓말	배수연	6
탐정동아리 사건일지	김현서 사랑이 으르렁	김릉	7
보란 듯이 걸었다	김애란 너에게도 안녕이	나태주	8
우리 어머님은 해너	허유미 포기를 모르는 잠수함	김학중	9
마음의 일 오은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	유현아	10
수능 예언 문제집	함기석 불불 뿔	이장근	11
지금이 딱이야	최은숙 너와 떡볶이	이삼남	12
처음 가는 마음	이병일 신발 멀리 차기	서형오	13
해피 버스데이 우리 동네	신지영 악몽을 수집하는 아이	임수현	14
이제 호랑이가 온다	남호섭 세상이 연해질 때까지 비가 왔으면 좋겠어	김준현	15
숨겨 둔 말	김현서 웃는 버릇	김응	16
핑크는 여기서 시작된다	최설		17



창비청소년시선 06

파울볼은 없다

이장근 시집 | 초판 2016 | 112면



#문제아 #뜻사랑 #꿈 #성장 #성적
#학교는_언제_철드나 #인생_초보 #꿀찌의_반란

추천
독자

- 인생은 초보지만 마음만은 짱이 되고 싶은 친구에게
- 말장난의 묘미와 재치를 맛보고 싶은 친구에게
- 시를 읽으며 웃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싶은 친구에게

형은 밤낮없이 공부해서
일류대에 간단다

나는 밤낮없이 알바해서
내 가게를 차릴 거다

부모님은 나만 보면 혀를 차지만
나는 혀 차는 소리를
박수 소리로 듣기로 했다

내가 쓰는 야구장이
더 넓을 뿐이라고

- 「파울볼은 없다」(52쪽)



창비청소년시선 08

난 학교 밖 아이

김애란 시집 | 초판 2017 | 152면



#자퇴 #홈스쿨링 #우정 #아토피 #한 부모 가정
#스포츠머리_엄마 #학교랑_멀어진_우주_미아

추천
독자

-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을 알고 싶은 모든 이에게
- 나만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겨운 친구에게
- 엄마의 외로움과 씩씩함을 이해하고 싶은 아들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을 아시나요?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다가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 때
올라타면 지친 나를 태우고 터벅터벅
낙타처럼 끈기 있게 걸어가는 말

외롭고 추운 눈밭에서도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터벅터벅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말

햇팩을 백 개는 가진 것 같은

내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나는 가끔씩 그 말에 올라타요

학교를 그만둔 날
엄마가 내게 해 준
괜찮다는 말

아무리 추울 때도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그 말 등에 타기만 하면

-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28~29쪽)



창비청소년시선 10

나의 첫 소년

손택수 시집 | 초판 2017 | 128면



#탐험 #우정 #추억 #고래 #나무 #주체적 관점
 #지구별_과대망상가 #여기가_나의_신대륙

추천 독자

- 풍경이나 사물의 숨은 비밀을 알고 싶은 친구에게
-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친구에게
- 숨죽이고 있는 내 마음속 소년과 대화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별이 포옹을 하며 반짝한다면
 폭발하고 말겠지
 모든 빛나는 것들은
 고독하다

섬과 섬이
 모스부호처럼 흠어진 바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등대를 켜다

두려워 마라, 섬처럼 고독은
 등대를 밝힌다

- 「모든 별은 혼자서 반짝인다.(62~63쪽)

그 등대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 것이다

너는 너의 섬이 되어라
 나는 나의 섬이 되겠다



창비청소년시선 11

나는 고딩 아빠다

정덕재 시집 | 초판 2018 | 124면



#가족 #대화 #일상 #다정 #유쾌
 #고3_아들에게_보내는_편지 #친구_같은_아빠

추천 독자

-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궁금한 청소년에게
- 가족 이야기가 듣고 싶은 모든 이에게
- 시인 아빠가 보고 느낀 세상이 궁금한 친구에게

앞으로 1년간
 오리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폭탄선언을 한 것은
 개나리가 학교 담장을 감싸 안은
 고3의 봄날
 야간 자습 땀방이치고
 PC방에 갔다가
 선생에게 걸려
 오리걸음 벌을 받고 돌아온 날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내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빠 아들이 아니야
 열흘이 지나지 않아
 훈제오리를 먹고
 아들이 아닌 행세를 하느라
 아버리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저씨라 불렀다

- 「봄날의 오리.(22~23쪽)



창비청소년시선 12

그 아이에게 물었다

한상권 시집 | 초판 2018 | 112면



#스승 #제자 #대화 #질문 #학교생활

#읽고_나면_똑똑해진_기분 #선생님은_이런_생각을_하는구나

추천
독자

-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싶은 친구에게
- 빛나가고 엇나가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 선생님과 학생의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에게

고등학교 마치면 절에 가고 싶어요.
절이라니 너무 멀리 나가는 것 아냐?
오래전부터 머리를 곱게 깎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야, 머리 깎기 전에
심지 약한 그 마음부터 먼저 깎아야지.
그러자 걱정할 것 없다며 빙긋 웃더니
짧지 않은 마지막 겨울 방학 때
너는 정말 경주 근처 어느 산사로 들어갔지.
아니 너, 똥강아지, 세상 몇 년 살았다고
소동파나 이백 흉내를 내면 안 되지.
대학 가고 군대 다녀오고
그때까지도 흔들림 없는 길이라면 그때 결정해야지.

갑자기 겨울이 서두르고 눈발이 흩날리고
두 달 정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2월 어느 졸업식 날, 학교에 다닐 때보다
머리카락을 더 짧게 깎고 너는 나타났다.
그리고 빛나는 졸업장을 든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하며 사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 같다고 말했지.
그래,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어딘가 또 다른 곳에서
더 빛나는 너의 가슴을 보고 싶다.
예외 규정이 많아 자꾸 빛나가는 나의 문법 시간

- 「문법 시간」(86~87쪽)



창비청소년시선 14

댄스, 푸른푸른

김선우 시집 | 초판 2018 | 116면



#사춘기 #마음 #생태 #외로움 #사랑

#마음의_빨간약 #인생은_최상의_배움터

추천
독자

- 뽀족한 말에 상처 입은 모든 이에게
- 지금이 왜 좋은 때인지 잘 모르겠는 청소년에게
-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청소년에게

쓸쓸한 날의 쓸쓸한 기분은
살아 있는 게 뭐가 의미 있는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을 쥐
쓸쓸한 날이 찾아오면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말이 잘 들려
평소엔 그런 말들 무시하거든
복잡한 생각 귀찮으니까
되든 안 되든 공부나 하자 그러거든

기왕 태어난 거 정말 근사하게 살고 싶어져
발 동동 구르는 시험 성적, 대입, 스펙,
그딴 게 좀 하찮게 느껴지고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뭔가를 하며 살고 싶어져
그 뭔가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쓸쓸한 날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

- 「쓸쓸한 날엔 쓸쓸해하자」(100쪽)

쓸쓸 한 손가락, 쓸쓸 두 손가락, 쓸쓸 세 손가락
쓸쓸을 꼭꼭 씹어 먹다 보면 가슴의 말이 점점 더 잘
들려



창비청소년시선 16

감자가 맛있는 까닭

서정홍 시집 | 초판 2018 | 112면



#농부 #청년 #산골 #정 #경남 합천
 #진짜_공부 #오로지_자연이_그대로_있기를

**추천
독자**

- 청년 농부의 하루가 궁금한 도시 청소년에게
- 산골 마을의 자랑거리를 엿보고 싶은 친구에게
- 이웃과 동물과 정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이에게

숨 쉬기 좋은 작은 흙집
 겨울 내내 따뜻한 온돌방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맑은 공기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골짜기 물
 땀을 씻겨 주는 시원한 산 바람
 아침마다 찾아와 노래 불러 주는 산새들
 텃밭에 싱싱한 푸성귀
 산과 들에 자라는 산나물과 들나물
 때가 되면 제멋대로 곱게 피는 들꽃
 그들을 만들어 주는 감나무
 된장 간장 고추장 먹을거리 가득한 장독대
 장독대 옆에 핀 분꽃과 봉숭아

쉬지 않고 흐르는 깨끗한 개울물
 개울물에 한가로이 노니는 물고기
 보면 볼수록 빛나는 별

그 무엇보다
 아이들처럼 토라졌다가
 금세 웃고 지내는 산골 할머니들

- 「산골 마을 자랑거리」(46~47쪽)



창비청소년시선 17

마디마디 팔딱이는 비트를

김미희 시집 | 초판 2019 | 104면



#아빠_엄마 #개성 #자부심 #궁금증 #인생론
 #세상을_향한_스트라이크 #나를_발견해_보려고

**추천
독자**

- 사물들이 건네는 말을 들어 보고 싶은 친구에게
- 내가 왜 까칠해졌는지 알고 싶은 친구에게
-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간다고 외치고 싶은 청소년에게

보리는 익을수록 온몸이 까칠하다
 밤송이도 거칠고 까칠해진다
 까칠해졌다는 것은 지킬 게 생겼다는 것이다
 책임이 생겼다는 것이다
 따갑다 자꾸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준다

정말 시간이 약일까?

- 「까칠해진 너에게」(30쪽)



창비청소년시선 18

만렙을 찍을 때까지

박일환 시집 | 초판 2019 | 104면



#우정 #사랑 #속마음 #뼈딱션
#시험_스트레스 #친구_같은_시

추천
독자

- 성적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친구에게
- 선생님께 뼈 때리는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 학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찾고 싶은 청소년에게

포기란 배추를 썰 때나 쓰는 말이라고 했지.
나에게도 포기란 없다.
만렙의 고지에 오를 때까지는
좌절도 절망도 내 것이 아니다.

그만하라는 말
나에게 던지지 마라.

- 「만렙」(부분, 34쪽)

밥이나 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수업 시간마다 책상 위로 푹푹 쓰러지는
내 친구들은 알 거다.

시험지에서 정답을 찾는 손은 느려도
마우스를 쥔 손은 누구보다 빠르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기어코 만렙을 찍을 때까지



창비청소년시선 23

가장 나다운 거짓말

배수연 시집 | 초판 2019 | 124면



#기분 #감정 #두려움 #불안 #솔직함
#현실에서_나를_지키는_법 #화가_날_때_화를_내면_외압되?

추천
독자

- 때론 우울하고 때론 유쾌한 모든 이에게
-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친구에게
- 솔직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보여 줄 거짓말이 많아서
모양이 잘빠진 기타를 샀다
친구들은 내가 음악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하마터면 나도 그럴 뻔했어

그럴수록 유리하다 모든 것이
가장 새로운 거짓말이 되고 싶어
니가 그렇고 그렇다고?

보여 줄 거짓말이 많아서
포샵을 연마했다
수십, 수백 명의
친구들이 이어진다
운동회의 만국기처럼
성탄절의 색전구처럼

너무 완벽해서 엄마가 믿지 않는, 아빠가 믿지 않는
거실의 거울은 절대 볼 수 없는
나는 가장 나다운 거짓말이 된다

- 「거짓말」(78~79쪽)

아직도 보여 줄 거짓말이 많고



창비청소년시선 24

탐정동아리 사건일지

김현서 시집 | 초판 2019 | 128면

#중학생 #성장 #속마음 #추리 #연작시
#추리시_읽고_싶은_사람? #태블릿_실종_사건 #범인은_가까운_곳에

추천 독자

- 일상이 무료한 모든 이에게
-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 추리 소설, 추리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실장을 미행했지만 허탕만 쳤다
목격자는 하나같이 똑같은 말뿐이고
수사는 며칠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

함정 수사를 해 볼까? 슬쩍 떠보는 건 어때?
혹시 순실 태블릿 사건처럼 감자 줄기를 잡은 거면?
미궁으로 빠져선 안 되겠지
아, 쪽팔리게 수선만 피우다 마는 건 아니겠지?
날알 같은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고 있는데

동아리방 문 밑으로 쪽지가 하나 쭈욱 들어왔다
챌싸게 문을 열고 나가 보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쪽지를 펴 보니

강당 옆에서 진철이와 진철이가 다투고 있다

이게 뭘 소리아? 곁에 있던 보드판도 기우똥 기우똥
소 닭 보듯 관심조차 없던 애들인데
도대체 둘이 싸울 일이 뭐가 있지? 순간
수상한 김새가 느껴져 조용히 강당 옆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진철이와 진철이는 보이지 않았다

- 「탐정 일지: 쪽지는 단서다.(80~81쪽)」



창비청소년시선 25

사랑이 으르렁

김룡 시집 | 초판 2019 | 144면

#연애 #사랑 #시험 기간 #호랑이 #영혼
#공부밖에_모르는_애_딱_질색 #사랑_맛지_우리?

추천 독자

-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하는 삶이 억울한 학생에게
- 사랑이 왜 으르렁대는지 알고 싶은 모든 이에게
-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들키고 싶은 친구에게

학교 밖에서도 으르렁,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린다. 고2가 되자 교실마다 으르렁으르렁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몇 마리가
꼭 있다.

호랑이도 아니면서 으르렁, 사슴이나 기린 같은
여학생들마저 으르렁, 한다.

쌤들은 그냥 지나가시길, 물소처럼 얼룩말처럼
들어도 못 들은 척 무사히 지나가시길, 부디
공부 따윈 입에 담지도 마시길.

으르렁, 사랑하고 싶은 것이다. 으르렁!

사랑받고 싶은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으르렁. 지금 으르렁대지 않으면
어디 한번 제대로 물어 보기나 하겠는가.

사람은 식물과 친해야 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날 울리메고 울러대던 엄마가 그랬다.
평생을 울지도 못하고 살았다.

- 「사랑이 으르렁 2.(44~45쪽)」



창비청소년시선 26

보란 듯이 걸었다

김애란 시집 | 초판 2019 | 140면



#성평등 #미혼모 #알바 #이혼 #반려 동물
#나다운_삶의_방식 #내_생애_첫_월급 #가족_같은_고양이

추천
독자

- 체육 시간에 피구가 아니라 축구를 하고 싶은 여학생에게
- 엄마, 이모, 할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싶은 친구에게
-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는 삶이 힘겨운 친구에게

친구들은 내 걸음걸이가
예쁘지 않다고 한다
남자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다
그때마다 난
내 걸음걸이가 어때서?
당당하게 반문한다

엄마도 종종 여자에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고 야단친다
같이 어디를 갈 때면
여자답게 걸으라고 면박을 준다
그럴 때 난

두 팔을 힘차게 흔들며
더 씩씩하게 걷는다
무릎을 쪽쪽 펴고
빠르게 걷는다
이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이라는 듯이
여자다운
나다운
꽤 웬잖은 방식 아니냐는 듯이

- 「여자답게 걸어라」(10~11쪽)



창비청소년시선 27

너에게도 안녕이

나태주 시집 | 초판 2020 | 184면



#꽃 #예뻐 #소통 #공감 #위로
#사람을_살리는_약 #길냥이의_위로

추천
독자

- 나태주 시인의 「꽃」을 읽고 미소 지었던 모든 이에게
- 왜 시를 읽어야 하는지 궁금한 친구에게
- 응원과 위로가 필요한, 상처 입은 모든 이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자아이를 만나
안녕, 하고 인사를 했다
아이도 안녕,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조금 더 가다가
애기똥풀꽃을 만나 또
안녕, 하고 인사를 했다
애기똥풀꽃도 배시시 웃으면서
안녕, 하고 따라서

인사를 받았다

오늘은 모처럼 비가 내리고
맑고 파란 하늘
맑아도 너무 맑은 하늘
우리는 너무 오래 만나지 못했다
너에게도 안녕이 있기를 바란다.

- 「너에게도 안녕이」(144~145쪽)



창비청소년시선 28

우리 어머는 해녀

허유미 시집 | 초판 2020 | 144면

#제주 #해녀 #엄마 #제주어 #4·3 사건

#제주도를_알고_싶어 #제주도에_친구가_산다

추천
독자

- 제주도와 제주어가 궁금한 친구에게
- 섬 생활을 하는 청소년이 궁금한 모든 이에게
- 한 번쯤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생각한 모든 이에게

바다는 해녀의
거대한 눈물 한 방울이어서
파도는 눈물 한 방울의
흔들거리는 몸짓이어서
눈물 한 방울이 섬을 꼭 안고 있어서
우리는 해 질 녘이면
눈물 젖은 몸으로
가족의 이마를 만져 주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별은 눈물의 깊이를 알고 있어서
바다에서 사뭇 반짝이고
눈물에 가라앉은 숨비소리는

찬 바람을 모으고 있어서
바다가 바람보다 커서
눈물의 온기로 섬이 잠들어서
발아래 훌쩍훌쩍 물결치는 밤이어도
우리는 등대처럼 서로의 어두운 얼굴을
거대한 눈물 한 방울로 감싸고 있네

- 「눈물 한 방울」(104쪽)



창비청소년시선 29

포기를 모르는 잠수함

김학중 시집 | 초판 2020 | 152면

#차별 #소의 #아픔 #눈물

#희망은_불구가_아냐 #아씨의_연대

추천
독자

- 친구의 아픔에 눈 맞추고 싶은 친구에게
- 혼자만의 아픔을 가진 친구에게
-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끼는 친구에게

나는 포기를 모르는 잠수함 우리집의 승조원. 승리의 날에도 침묵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할 뿐. 가끔 이 심해를 벗어나 잠망경을 울리고 싶지만, 아직 이 바다의 표면까지 부상하지 못했음. 매일매일 향해 일지는 차가운 무한의 바다에서 미래를 향해 쓰임. 현재 위치. 하루. 하루. 이상 향해 일지 끝.

- 「잠수함 우리집의 향해 일지」(부분, 101~102쪽)



창비청소년시선 30

마음의 일

오은 시집 | 초판 2020 | 116면



#성장 #내면 #따듯함 #위로 #재치
 #이건_진짜_내_애기 #울고_싶은데_울_수_없을_때

- 추천 독자**
- 언어유희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 내 마음을 알고 싶은 모든 이에게
 -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청소년에게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팍 차 있었다

나는 오늘 나무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나는 오늘 구름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 「나는 오늘」(부분, 8~9쪽)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올었다



창비청소년시선 31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

유현아 시집 | 초판 2020 | 104면



#친구 #특성화고 #실습 #알바 #엄마
 #말_거는_연습 #엄마도_엄마는_처음이야

- 추천 독자**
- 주눅을 사라지게 하는 비법을 전수받고 싶은 친구에게
 - 내 목소리가 세상에 들리게 하고 싶은 청소년에게
 - 엄마의 일기장에 무슨 얘기가 쓰여 있는지 알고 싶은 아들딸에게

내 어깨엔 주눅이 붙어살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디에선가 귀신처럼 날아와요
 깔깔 웃는 내 얼굴에도 가끔 주눅이 붙어요
 자세히 보면 교복에도 얼룩처럼 붙어 있죠

거울 속 그림자처럼 나만 볼 수 있다면
 주눅 같은 건 없다고 거짓말 칠 수 있는데
 나만 빼고 다 보이냐 봐요
 어깨 가슴 쪽 펴고 다니라고
 교복 신경 쓰지 말라고
 땅바닥 보지 말고 정면만 보라고
 말해 주는 내 친구 등에도 주눅이 붙어 있죠

학원 가는 길 신호등 옆
 빨간 등이 켜질 때를 기다리며 내 친구는
 가끔 이런 고함을 지르죠
 흥, 찿, 뽕
 친구 등짝을 후려치면
 주눅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잠깐,
 주눅은 또다시 내 친구 머리 꼭대기에서
 룰루룰루 노래를 하죠

-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부분, 12~13쪽)



창비청소년시선 32

수능 예언 문제집

함기석 시집 | 초판 2020 | 120면



#입시 #학업 #고3 #은유 #세월호

#입시_사막에서_오아시스_찾기 #내가_상상하는_곳_끝까지_가는_버스

추천 독자

- 캄캄한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친구에게
- 입시 지옥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 다채로운 시적 이미지를 보고 싶은 친구에게

오늘은 기말고사 끝난 금요일
 두호랑 영교랑 도경이랑 「웃는 뼈다귀」를 보기로 하고
 긴 지렁이 줄 끝에 섰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줄지를 않는다

아, 이 도시에
 무덤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걸까?
 그사이 누군가 걸어와 우리 뒤에 선다
 흘깃 돌아보니 콧이다
 콧수염 달린 가면에 멋진 마법 지팡이를 들고 있다

콧이 선물이라며 품에서 마법책을 꺼내 건네준다
 와! 우와! 『수능 예언 문제집』이다

2021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15년 동안의
 수능 예언 문제랑 정답이 과목별로 짝 나와 있다
 우리가 방방 뛰며 엄청 좋아하자
 웃는 뼈다귀 콧이 말한다
 애들아, 지금 여기도 영화 속 한 장면이야!

- 「수능 예언 문제집」(부분, 48~49쪽)



창비청소년시선 33

불불 뿔

이장근 시집 | 초판 2021 | 112면



#긍정 #웃음 #동물시 #운율 #시적 형상화
#발랄한_물음표가_한가득 #시가_이렇게_재밌다니

추천 독자

-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싶은 친구에게
- 시와 그림으로 시를 읽는 즐거움을 알고 싶은 친구에게
- 동물이 주인공인 시가 궁금한 모든 이에게

아니불 아니불 불불 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부르는 주문
 이중 부정으로 들이받아
 강한 긍정으로 바꿔 버려

자! 시작해 볼까
 시험을 망쳤니 뿔
 망쳐 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엄마한테 혼났니 뿔
 혼나 보지 않은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
 절망에 빠졌니 뿔
 절망 없는 인생은 희망도 없어

희망이 없었니 뿔
 없는 게 아냐 절망을 뒤져 봐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
 누군가가 너에게 던진 돌
 돌과 돌을 부딪쳐서 번쩍 한 번 더 번쩍
 불불을 때까지 번쩍번쩍
 세상에 못할 일은 없어
 못한다는 말을 들이받아 뿔
 성난 황소처럼 들이받아 뿔
 아니불 아니불 불불 뿔

- 「불불 뿔」(20~21쪽)



창비청소년시선 34

지금이 짝이야

최은숙 시집 | 초판 2021 | 148면



#성장 #스승 #제자 #공동체 #평등

#내_마음을_알아주는_어른 #우리_선생님이_제일_좋아

추천
독자

-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 다정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친구에게
- 공동체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친구에게

올봄에도 아이들이 쭉 뜯으러 나올 거라고
동네 어른들은 독길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았습디다
쭉 뜯는 동안 자동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은 것은
다들 뒷길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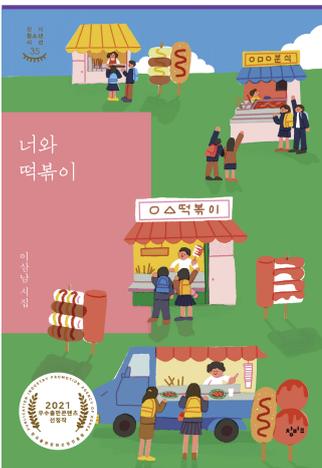
공부 안 하고 놀러 나온 게 좋아서
장난치고 도망가고 야단법석
그래도 쭉이 모자라지 않았던 것은
방앗간 사장님이 뜯어 놓았던 쭉을
한 소쿠리 보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학교 앞 솔로몬문방구랑 스마일분식, 독립상회까지
떡을 돌리고도 전교생이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들이 쌀을 듬뿍듬뿍 퍼 주셨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선생도 자라고
마을은 깊어 갑니다

- 「알고 보니」(87쪽)



창비청소년시선 35

너와 떡볶이

이삼남 시집 | 초판 2021 | 128면



#고3 #입시 #학교생활 #코로나

#출제자의_의도_찾기 #3.5준기와_4.5준기_사이

추천
독자

- 진로 희망 칸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친구에게
- 시와 삶이 하나 되는 문학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에게
- 코로나 시대 학교의 생생한 현장 모습이 궁금한 이에게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떡볶이 맛집 유랑
얌만 봐도
그 집이 그 집인데
떡볶이 맛이
집집마다 다르다는 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희한한 건
그놈의 맛이라는 게
매번 다르다는 거다

나에게 떡볶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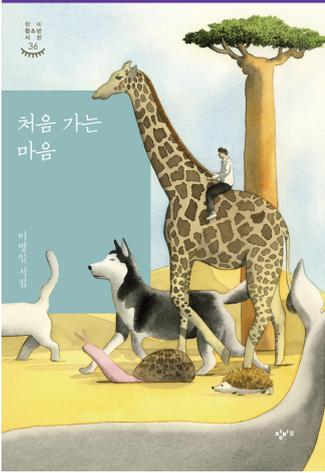
간식이 아니라 이야기다

우정이고 인생이야
알기나 해

콩콩이 타러 다닐 때는
콩콩이가 알파고 오메가라더니

너와 떡볶이의
복잡한 함수 관계는
아무래도 수수께끼다

- 「너와 떡볶이」(48~49쪽)



창비청소년시선 36

처음 가는 마음

이병일 시집 | 초판 2021 | 128면



#가족 #소년 #용기 #성찰 #묘사

#여긴_어디_나는_누구 #틀에_박힌_오늘을_어떻게_살아야_할까

추천 독자

- 나 자신이 궁금한 친구에게
-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친구에게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
 유행 지난 내 옷을 입고 자는 사람
 내 농구화를 신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사람

나만 모르게 조용히 어깨를 수술한 사람
 매일 속아 주면서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

—엄마, 이번 생은 망했어!
 —한숨 자고 이야기하자, 저녁엔 네가 좋아하는 닭볶음
 당 해 줄게

뒷말이 천생인 사람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엄마는 그저
 내 등 뒤에서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를 하네
 나는 아직 깊은 잠에 친친 감기지 않아
 눈알이 흐리게 따끔거렸네

—「엄마」(113쪽)



창비청소년시선 37

신발 멀리 차기

서형오 시집 | 초판 2021 | 120면



#가정 #그리움 #공생

#청소년의_현실 #신발에_담긴_마음

추천 독자

- 공부를 끄고 생각을 켜고 싶은 친구에게
-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친구에게
- 경쟁하는 현실에서 공생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서
 신발 멀리 차기 놀이를 한다
 발등에 신발을 걸고
 힘껏 발을 내뺌자
 포물선을 그리며
 신발이 날아간다
 마지막에 찬 내가
 1등이다
 멀리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우러
 깨금발로 뛰어가면서

생각한다
 아빠의 마음도
 별거 중인 엄마한테
 깨금발로 뛰어갔으면 좋겠다
 잠시 높은 곳 먼 데에 갔다가
 땅으로 내려온 신발을
 찾으러 가듯이
 엄마를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신발 멀리 차기」(16~17쪽)



창비청소년시선 38

해피 버스데이 우리 동네

신지영 시집 | 초판 2021 | 128면



#공동체 #성찰 #다문화 #위로
 #진정한_나_찾기 #우리라는_다정함

추천 독자

- 자신이 쓸모없다 생각하는 친구에게
- 차분함 속에 파도치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친구에게
- 세상의 경계와 구분이 버겁게 느껴지는 친구에게

녹슨 웃음이 빼걱대는 놀이터
 작은 공장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낡은 지갑을 든 엄마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아이들은 분홍 야광 공처럼 튀어 다니죠
 그 빛이 또 얼마나 예쁘다고요

우리 동네는 사람을 먹여 살리지 못하죠
 달콤한 케이크의 중심부를 먹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두 충치가 있다는 거예요
 씹어서 동그랗게 구멍 뚫린 삶
 누구는 시간을 갉아먹은 흔적이라고도 했죠
 왜 이 거리 사람들은 치과도 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뭐가 좋다고 배춧잎처럼 푸르게 웃는지
 오늘은 3월 1일
 해피 버스데이 우리 동네
 내 생일하고 똑같아 잊을 수 없죠
 초가 꽃힌 케이크 같은 건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인 건 믿어요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추운 봄날이에요

- 「해피 버스데이 우리 동네」(부분, 8~9쪽)



창비청소년시선 39

악몽을 수집하는 아이

임수현 시집 | 초판 2022 | 128면



#꿈 #비유 #상상 #공감
 #악몽의_동반자_되기 #귀신은_발목을_가져다_뭘_할까

추천 독자

- 꿈속에 등장했던 귀신의 행동이 궁금한 친구에게
- 불안과 쓸쓸함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친구에게
- 불편한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애들아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고
 집에 강도가 들고
 불이 나는 꿈을 꿨다고?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머리맡을 지키고 있을게

울다 깬니
 손바닥 가득 땀이 났어?

괜찮아 괜찮아
 차르르르 차르르르

빙그르르르 빙그르르르
 좋은 꿈도 나쁜 꿈도 너만 알 수 있지만
 내가 꿈속까지 같이 가 줄게

내 손을 잡아

- 「악몽을 모으는 드림캐처」(68~69쪽)



창비청소년시선 40
이제 호랑이가 온다

남호섭 시집 | 초판 2022 | 116면



#호랑이 #자연 #교감 #생태
#경계를_넘은_이야기 #공동체적_의제

- 추천 독자**
-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에게
 - 사진 같은 시를 읽고 싶은 친구에게
 - 호기롭고 생생한 이야기를 시로 만나고 싶은 친구에게

지리산 불일폭포 뛰어내릴 때
어린 물방울 형제는 몰랐다

앞으로 열 번 백 번
더 뛰어내려도

천 번 만 번
흩어졌다 다시 뭉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이 시작됐다는 것을

- 「먼 길」(47쪽)



창비청소년시선 41
세상이 연해질 때까지 비가 왔으면 좋겠어

김준현 시집 | 초판 2022 | 120면



#공감 #위로 #사랑 #성장 #내면
#귀가_되어_주는_시집 #나의_넓이_구하기

- 추천 독자**
-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은 모든 이에게
 - 사랑을 받고 싶은 청소년에게
 - 시가 재미없고 어렵다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세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높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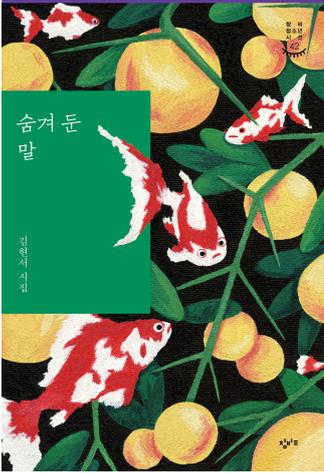
그렇다면 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

사람은
세상에서 넓이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형이야
좀 더 크면
나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게 될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곱한 다음
너와 마음을 나누면
알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나의 넓이를

- 「넓이를 구하는 공식」(10쪽)



창비청소년시선 42

숨겨둔 말

김현서 시집 | 초판 2022 | 112면



#학교 폭력 #외로움 #알바 #첫사랑 #불안
#센_척_아무렇지_않은_척의_속사정 #인생의_쫄린_맛

추천 독자

- 장난으로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친구에게
- 친구들의 괴롭힘을 혼자 견디느라 힘겨운 청소년에게
- 세상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운 모든 이에게

암막 커튼을 젖히며
 눈부신 햇살을 쏟아 내는 그 말!
 넌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의 말이 입 안에서 사탕처럼 굴러다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탕!
 천 개쯤 있었으면 좋겠어
 넌 혼자가 아니야
 조랑말처럼 다가다가닥 소리도 경쾌해
 몸집은 적당하고 꼬리는 탐스러워
 첩퍼덕첩퍼덕 똥도 잘 쌀 거 같아

넌 혼자가 아니야
 읊조릴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 같은 내 몸이
 나풀나풀 날아올라
 노랑나비 흰나비 이리 날아오너라
 넌 혼자가 아니야
 창문을 열고 높은 담장도 폴짝 뛰어넘어
 창공으로 날아올라

- 「혼자가 아니야」(부분, 82~83쪽)



창비청소년시선 43

웃는 버릇

김웅 시집 | 초판 2023 | 104면



#열다섯 #위로 #공감 #용기 #성장
#슬플_때도_웃는_것이_나의_버릇 #다정의_힘

추천 독자

- 따뜻한 시를 읽고 싶은 친구에게
- 시집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 응원받고 싶은 친구에게

“참 착하게 생겼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보며 말한다
 “진짜 잘 웃는다.”
 가끔 만난 사람이 나를 보며 말한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늘진 나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는다
 더 활짝 웃는다

슬플 때도
 심각할 때도
 웃음이 터져 나온다
 화를 내야 할 때도
 얼굴은 웃는다

- 「웃는 버릇」(33쪽)

웃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안다
 아플 때도



창비청소년시선 44

핑크는 여기서 시작된다

최설 시집 | 초판 2023 | 124면



#여학교 #중학생 #우정 #발랄 #응원
 #우리도_생각과_계획이_있다 #오늘도_피어나는_여중생

**추천
독자**

- 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 여중생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모든 이에게
-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한 청소년에게

검은 패딩 개미들이 떼 지어 갈 때 핑크 공주는 개미
 등을 툭 밀며 간다 좀 비켜 줄래 나 물들겠다

핑크 패딩 핑크 가방 핑크 파우치 핑크 핸드폰 이 세
 상 핑크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듯 옷을 때도 핑크가
 피어나는 것만 같아

핑그르르 웃는다 밀줄도 핑크 채점도 핑크 동그라미
 도 핑크가 짱이거든 이거 핑크 노트 누구 재요 핑크
 색으로 글씨 쓴 사람 제일 거예요 아니 핑크 속옷이
 라니 체육복에 다 비친다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까무잡잡 피부 지우고 아버지 담배 냄새 폭폭 가리
 고 며칠째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 김치를 꺼낼 때마
 다 터지는 손등

핸드크림 발라 주는 엄마 없어도 핑크 로션 꼭 챙기
 거든 꽃처럼 향기 내면서 잘 살고 있어 매일 핑크빛
 나는

- 「핑크 공주」(60~61쪽)